

탐정 소크라테스

사건은 일어나기 전에



◆ 책 소개

중학교 1학년 첫날,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려 애쓰는 지민은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으려는 희승에게 신경이 쓰인다. 자폐스펙트럼 특성이 있지만 예리한 관찰력으로 주변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희승은 지민의 접근을 단호히 차단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쌓인다. 희승이 전학을 간다는 소식이 돌아 반 아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지민에게서 찾고 지민을 따돌리기 시작하지만, 희승과 지민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주고받으며 오해를 풀다.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징후를 알아차리는 희승 덕분에 지민은 위기를 넘기고,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간다.

◆ 활동 대상 중학교 1-3학년

◆ 목표

표지를 단서 삼아 책의 분위기와 인물을 추리한다.

갈등 상황에서 사과 메시지를 구성해보고, 관계 회복의 언어를 연습한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생각해본다.

편지와 탐정노트, 메시지 등 다양한 기록 방식을 통해 관찰과 글쓰기를 확장한다.

표지로 추리하기

(읽기 전)



'탐정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다.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학교라는 작은 세상
매일이 아슬아슬한 모험 같아. ✨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으니까! ✨ ✨

소심하고 눈치 없는 내향인으로서 나 역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렵고, 내가 로봇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스피거 환자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말은 감히 할 수 없지만, 회승이의 고민과 모험에는 함께 울고 웃었다. 소설 주인공에게 이렇게 애정을 느낀 것도 오랜만이다. 회승이와 친구들을 만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개성 있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과 현실적이면서도 서스펜스와 반전을 제대로 갖춘 이 모험담을 계속 보고 싶다. 속편을 기다린다는 얘기가. — 장강명 (소설가)

반듯한 이마에 자신만의 규칙으로 세상을 읽는 주인공 회승이의 시선을 거치면 평범한 일상도 어느새 특별해진다. 소크라테스와 크리톤,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하는 모험이 나의 소년 시절을 소환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자연스럽게 일깨운다. 일 년의 시간을 썩씩하게 지나온 회승이에게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 하림 (가수)

어긋나고 작아지고 멀어지는 마음들
그 틈을 바라보는 따뜻하고도 예리한 시선...
조영주 작가 데뷔 15주년, 가장 섬세한 성장 미스터리!



ISBN 979-11-91803-57-0 43810 2 16,800원

표지 그림과 디자인만으로도 등장인물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보고 어떤 책일지 상상해보세요.

◆ 표지에서 눈에 들어오는 요소 3가지(인물, 표정, 색, 소품, 글씨 등):

- 1)
- 2)
- 3)

◆ 표지 속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 이 책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 '탐정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도움말 정답은 없어요. 책을 모두 읽고 난 뒤 다시 보면 내 추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비교할 수 있어요.

관련 교과 국어 1-1 2. 숨은 의미 찾기 (1) 추론하며 읽기 (2) 추론하며 듣기

미안하다고 말하기

(읽는 중)

[안녕, 희승아. 나 지민이야. 네가 전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진짜 놀랐어. 내가 한 일 때문일까? 그럴 만도 해. 나는 네 휴대폰을 허락도 없이 벗겼고, 네 책을 카레에 담갔으니까. 《탐정 소크라테스》 29페이지]

소설 속에서 지민은 희승의 책을 카레에 빠뜨린 뒤, 어떻게 사과할지 고민합니다. 내가 만일 지민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좋을까요?

◆ 내가 저지른 실수(상상해서 써봐도 좋아요):

.....

.....

.....

.....

.....

◆ 상대(희승)가 느꼈을 감정 2가지:

1)

2)

◆ 사과 메시지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내가 한 일을 분명히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기
- 해결 방법 제안하기
-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 내가 보내는 사과 메시지:

.....

.....

.....

.....

.....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

(읽은 후)

희승과 지민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친구의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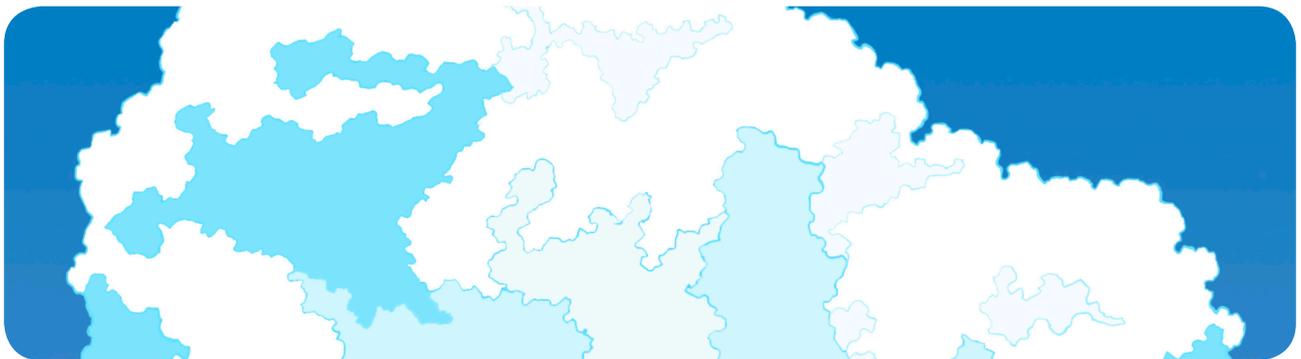
◆ 내친구의 ‘다름’을 발견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 피한다 웃어넘긴다 이해하려고 질문한다 곧바로 판단한다 시간을 두고 본다

◆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다름’의 예(상상해서 써도 좋아요):

◆ 지금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구체적으로):

◆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 내게 어떤 의미일까?:



느리지만 깊은 우정: 편지 쓰기

(창작 활동)

["잊지 말라고. 너는 늘 이 책을 갖고 다니니까. 여기 붙여놨다가 기억해서 나한테 꼭 편지해. 알았지?" 《탐정 소크라테스》 44페이지]

희승이와 지민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습니다. 편지는 메시지나 전화보다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지민처럼 스티커나 그림으로 꾸며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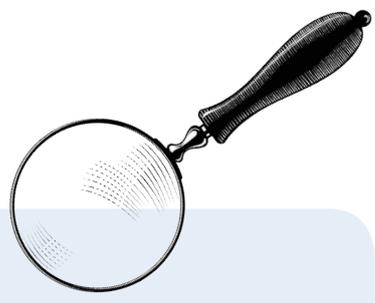
관련 교과 국어 1-1 1. 마음을 표현하는 법 (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희승이처럼 관찰하기: 나만의 탐정노트



["가자, 크리톤! 탐정이라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하는 법이다! 획획!"
 "탐정 소크라테스, 정말 알아듣게 말해줄래? 이 편지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분양 사기다!"
 희승이 콧바람을 훔훔 냈다.
 《탐정 소크라테스》 112페이지]

희승이처럼 주변을 관찰하고 기록해봅시다. 큰 사건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학교나 집, 동네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고, 단서와 추리를 적어보세요.



- ◆ 내가 저지른 실수(상상해서 써봐도 좋아요):
- ◆ 사건 제목:
- ◆ 언제/어디서 발견했나?

◆ 사람/사물/상황:

◆ 단서 3가지(보고 듣고 느낀 것):

- 1)
- 2)
- 3)

◆ 내가 세운 가설과 그 이유:

가설 A:

가설 B:

◆ 확인 방법(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것):

◆ 결론



도움말 관찰과 추측은 다릅니다. '사실(단서)'과 '생각(가설)'을 구분해서 적어보세요.

관련 교과 국어 1-1 3. 분류하고 활용하기 (2)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

내가 만약 희승이를 만난다면?

희승이는 '아스퍼거(자폐 스펙트럼 특성)'가 있는 친구입니다. 만일 희승이처럼 '나만의 규칙'이 강한 친구, 감각이 예민한 친구,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를 만난다면 어떤 태도로 대하면 좋을까요?

◆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상황 A: 친구가 시끄러운 곳에서 힘들어 보인다.

내가 할 말:

내가 할 행동:

◆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상황 B: 친구가 내 말을 오해한 것 같다(또는 내가 오해했다).

내가 할 말:

내가 할 행동:

◆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상황 C: 친구가 '규칙'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할 말:

내가 할 행동:





토론해봅시다.

◎ 희승과 지민 중 누구에게 더 공감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희승이 읽는 두 권의 책,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프랑켄슈타인》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음'일까요, '다름을 다루는 방식'일까요?
